

大學 文化의 新 地平

金 仁 會

(延世大 教育學科)

1

1960년 4·19 직후, 모 일간지에 연재되던 「혁명 전야」인가 하는 제목의 소설 속에서 당시 대학생들의 기질을 묘사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터진 적이 있다. 아마도 당시에 대학을 다녔던 이른바 4·19 세대들 중에는 이 사건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사람들이 적잖을 것이다. 당시 세간에 유행하던 말 중에 서울에서 손 꼽는 세 명 문대학 학생들의 대조적인 기질은 돈 천 원이 생겼을 때 드러나는데, 어느 대학 학생들은 막걸리부터 사 마시고 어느 대학 학생들은 연필부터 사고 어느 대학 학생들은 구두부터 닦는다고 할 정도로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다는 소리가 있었다. 우스개 소리나 속담도 못되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 사이에 유행처럼 오가는 잡담 비슷한 소리에 불과한 내용이었지만 이것이 소설 속에서 활자화되자 엄청난 문제가 된 것이다. 돈이 생기면 구두부터 닦는다고 지칭되던 학교의 학생들 수백 명이 신문사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 중 일부는 작가의 집으로 달려 가서 소설가 정모 씨를 반강제로 신문사 앞으로 연행하여 놓고 신문사측과 작가에게 공개 사과를 받아냈을 뿐 아니라 그 소설의 연재를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돈이 생기면 막걸리부터 마신다고 비유된 학교의

학생들 쪽에서는 오히려 시종일관 조용했었다. 그리고 보면 분명히 대학에 따라서 학생들의 기질적·문화적 차이가 있기는 있었던 모양이다.

4·19 당시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었다가 1년 사이에 거의 반이 불어나서 1961년 5·16이 일어났을 때에는 14만 명 가량 되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쉽사리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대학생 수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이해되기 힘들 일은 학교마다의 학생들의 기질이 세간에서 유행어가 생겨날 정도로 서로 다를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학생들은 또한 그런 개성의 차이를 지적받아서 그렇게나 비지성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까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대학생 인구가 그때에 비해 10배나 더 불어난 오늘의 대학 문화를 기준으로 하고 돌이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집단적 반응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그 시절의 대학생 문화를 기준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학 문화를 바라 본다면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집단적 반응이라 수박에 없을 것이다. 지난 날의 다양했던 대학들마다의 개성적 문화와 기질의 차이가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단순하고 획일적인 모습으로 통일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대학의 수도 대학 인구의 규모도 크게 늘었지만 대학들간의 문화적 개성과 기질적 차이는 오히려 사라져 버린 것이 아

년가 의심될 정도로 되고 만 것이다. 설사 합격 점수의 분포에서는 학교 차가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이 누리는 대학 사회의 문화에 있어서만은 학교 차에 따르는 다양성이나 개성이 이미 사라져 버린지 오래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소리는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차림새는 물론이고 관심 갖는 문제, 사용하는 어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좋아하는 책의 종류, 존경하거나 증오하는 대상, 즐기는 놀이 등등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 문화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따르는 개성이나 기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까지 할 정도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서로 비슷해졌다. 좀 뭉뚱한 비유이지만 일부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는 재단의 비리 수범마저도 서로 비슷하게 닮아가면서 자행되어 왔던 것 같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규탄이나 성토의 방법 또한 비슷한 양상과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더욱 민망한 것은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수들의 행동 양식이나 처세 수범에서마저도 대학의 차이를 뛰어넘는 어떤 공통성이나 획일적 특징이 발견될 적이 종종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일부 학문 분야에서는 관심 영역이나 연구 방법, 심지어 학술 논문의 주제, 체제, 성격 등에서까지도 학교별 차이나 개성보다는 마치 규격화되더라도 한 것처럼 획일적인 공통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대학 문화라고 말해도 지나친 소리가 아닐 정도다.

때로는 남과 비슷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게 되는 대학가의 경직된 분위기에서마저도 비슷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다. 그 냄새, 획일적으로 규격화되는 것만을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남들과 달라지려는 것을 마치 반역자나 기형아를 만난 것처럼 경악과 분노와 증오의 눈으로 보려드는 분위기의 냄새가 대학가에서 어제 오늘 갑작스레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른바 '군사 문화'라는 말로 지칭되던 일상불란한 획일주의, 물리적 힘을 배경으로 하는 권위주의가 지

배하던 시대와 더불어 자라난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풍기는 냄새이니 벌써 28년이나 발표되어 온 냄새이다. 설사 그 냄새의 이름에 '권위주의의 불식'이니 '민주화'니 '자율'이니 하는 표현이 붙는다고 해도 획일성을 본질로 하는 한 그것은 여전히 군사 문화 내지 관료 문화를 담은 집단주의일 수 있을지언정 결코 대학 문화다운 개성주의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의 대학가를 지배하고 있는 '열기'의 정체를 '민족적 양심', '정의감', '젊음', '이상적 진보주의', '순수', '열정' 등의 용어와 관련지어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성', '성찰', '반성'같은 대학 문화의 본질이나 핵심을 지칭하는 개념들과 관련지어 설명하거나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학 문화는 감각주의적이고 비지성적인 대중 문화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적 개성, 이른바 대학 문화로서의 특징이랄 수 있는 지적 탁월성, 문화적 교양, 창조적 개성, 진리 탐구의 능력, 이상주의적 순수성 같은 '정신적 힘'을 훼손당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

이미 반세기 전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가제는 마드리드대학 학생들에게 행한 강연¹⁾에서 오늘의 유럽과 같은 혼돈의 시대 상황에서야말로 대학은 스스로를 '정신적 힘'의 주체로 선언해야만 한다고 갈파한 바 있거니와 반세기가 지난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도 이 말은 우리의 대학 문화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가다듬도록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을 성싶다. 오르테가는 대학의 기능은 문화 전승, 직업 교육, 과학적 탐구 및 새로운 과학자의 훈련 등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그 기능들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이 지녀야 할 몇 가지 기본 전제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대학의 1차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은 보통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베푸는 것이다. 특

1) José Ortega Y Gasset, *Mission of the University*(trans., Howard Lee Nostran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출한 소수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평균인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야말로 현대의 대학교육의 1차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학은 이 보통의 학생들로 하여금 그 시대 최고 수준의 교양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육에서는 1차적으로 위대한 학문적 문화 유산들, 이를 테면 물리학, 생물학, 역사학, 사회학, 철학 등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대학은 이 보통의 학생들을 우수한 전문 직업인으로 만드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문화적 교양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대학은 또한 인류의 지성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직접적이며 효율적인 절차를 동원하여 저들로 하여금 훌륭한 전문 직업인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한다.

네째, 이와 아울러서 대학은 과학적 연구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르테가가 대학에 대해서 정작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대학의 이러한 기능적 측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연속 강연의 맨 마지막 장에서 그는 당시 유럽의 상황을 ‘지난 날의 정신적 힘들이 사라져 버린’ 시대로 규정한다. 교회는 이미 현세를 방기해 버렸으므로 인해, 그리고 국가는 민주주의가 승리했으므로 인해 사람들의 삶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삼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사람들의 삶은 이제 교회나 국가 대신 저들의 여론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대중의 삶은 이러한 상황 속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신적 힘, 곧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시사적인 사건들과 관계 맺게 마련인 언론의 손아귀 속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 오르테가의 지적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일개 언론인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실체들간에는 그 진정한 가치에서 위계적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언론은 이 가치의 위계 순위에서 최하위 쪽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타 정신적 힘들의 업무 태만 덕택으로 대중의 영혼을 돌보고 안내하는 책임이 언론의 몫으로 되고 말았지만, 실은 언론인이

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고상하지 못한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뿐 아니라 더욱 고약한 것은 언론인이 자기의 전문적 직업 영역으로의 가입을 허락하는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진짜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원한과 증오 심만을 지니고 있을 뿐인 좌절 당한 사이비 지식인들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인의 직업이라는 것이 만사를 시간의 박진적 진행을 따라 가면서 이해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성질의 일인데 이런 식의 이해 방법은 대상이 무엇이건간에 그 실상이나 구조에 유의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느낌에만 의존하게 만든다. 물론 실제의 인생이란 순연히 현재적인 것이다. 그러나 언론인은 그 현재적인 것을 찰나적인 것으로, 그리고 찰나적인 것을 다시 선동적인 것으로 바꿔 버림으로써 이 자명한 현재적 사실을 추악하게 변형시킨다. 그 결과는 오늘의 대중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진 세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할애하는 기사의 분량은 그 내용의 본질적인 또는 영구적인 중요성의 정도와는 반비례한다. 신문이나 잡지 칼럼에서 눈에 띄면 그것이 곧 성공과 평판의 보장이라고 믿게 되어 버렸다. 오르테가는 “우리 시대의 기괴함과 혼란의 대부분은 바로 이렇게 유일한 ‘정신적 힘’ 노릇을 하고 있는 언론의 독재적 지배를 당연시 해 온 결과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유럽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현실 문제에 개입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은 대학 나름의 문화적·전문적·과학적 관점으로부터 시대적 과제들을 관찰하고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더 이상 학생들만을 위한 독점적 기구일 수가 없다.

세상이 겪고 있는 위기와 수난의 정도가 절정에 이르른 이 시점에서 대학은 스스로를 언론보다 고상하며, 광란의 와중에서도 평정을 지킬 줄 알고, 경솔하고 파렴치한 어리석을 앞에서도 진지함과 지성을 잃지 않는 ‘정신적 힘’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나서야만 한다는 것이 오르테가의 결론이다.

어찌해서 반세기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그것도 내란과 폭력 혁명과 장기 독재라고 하는 수난의 역사로 점철된 스페인의 지성인이 대학의 사명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을 길게 소개할 생각을 했던가? 오늘의 우리 사회 현실과 대학의 모습이 오르테가가 50년 전에 비판한 내용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회는 민주화의 길로 치닫고 있으며 대학은 그 길의 선봉에서 서서 자율화와 발전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언론이라고 하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일 뿐 우리의 정신적 힘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이끌고 나아갈 만한 정신적 힘을 가진 새 안내자가 나타난 것도 아님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힘은 대학 안에서나 대학 밖에서나를 불문하고 대중의 여론과 격정적 반응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지난 날의 역사가 독선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으로 대중을 억압하고 지배해 왔었던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 문화의 시대에서일수록 대학의 대학다운은 대중과는 다른 문화적 개성을 지님으로써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대학은 그 시대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도 있다고 하는 오르테가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중 문화의 속성들 중에서도 특히 대학이 닮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아마도 말초적이고 선동적인 여론에 쉽게 휩쓸리는 집단적 감수성, 그리고 집단적 획일성을 거부하는 지적 탁월성이나 창조적 개성에 대한 무분별한 증오와 파괴 본능을 들어야 할 것 같다. 오늘의 우리나라 대학 사회 곳곳에서 쉽사리 발견되고 있는 이러한 대중 문화적 속성들의 연원은 기실 어제 오늘에 갑자기 생겨난 것은 물론 아니다. 그 천박한 속성들을 실천하는 힘의 주체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 왔을 뿐 이미 일제 식민지 교육에서부터 뿌리가 자라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는 더 이상 대중 문화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학 문화로만 남아 있어서는 아니될 지경에 이르른 것 같다. 더 이상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학 밖으로부터의 대중적 기준과 가치관과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기를 계속한다면, 그리하여 대학이 사회 현실을 닮아 가기에만 급급해 한다면 오늘의 우리 사회와 역사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과 혼란의 와중을 헤쳐 나갈 방향을 찾을 기준이 없게 된다. 대학은 사회를 닮아가려 노력하기보다 사회에 대해 모범을 보이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학 문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학 문화의 체질과 구조가 새롭게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그 첫째 과제가 바로 대학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의 마련이다. 모든 대학들이 서로 다른 다양하고 독특한 개성과 분위기 속에서 발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 '정책'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학생 선발, 운영, 학사, 인사 행정 등에서 대학에 대한 획일적 통제와 간섭 대신에 자율적 자유 경쟁 체제가 보장되어야만 다양한 종류의 대학 문화가 꽃 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문화의 새로운 지평은 어느 한 가지 색채로만 그려진 평행선 모양으로 열려서는 아니 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색이나 선이라도, 설사 민주주의적 대학 풍토라는 이름의 지평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획일적인 민주주의 풍토는 이미 대학 문화적 속성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적 풍토를 자랑하는 대학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지적 권위주의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으며, 반권위주의적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대학 문화 풍토가 우리나라 대학 문화의 본질로 되어야만 한다.

오늘의 대학들이 그렇게 변할 때라야만 앞으로 대학은 대중에 속하는 보통 젊은이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적 능력과 창조적 개성을 지닌 수준 높은 교양인들로 교육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대를 이끌어 가는 대학의 정신적 힘은 바로 이러한 대학 문화다운 속성들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일 게다. *